

신뢰감 바탕으로 고객서비스 추구

사업장 이전으로 제2의 도약



한 무 만
가람프로세스 대표

품질 제일주의 사명으로 고객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람프로세스(대표 한무만)는 1986년 설립 이후 20여년간 국내의 그라비아 제판필름 산업을 선도하며 사랑과 정이 넘치는 기업, 부단히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업, 고객이 만족하는 기업을 토대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형 공장 IT캐슬로 확장 이전한 가람프로세스.

한무만 사장은 “가산디지털단지가 산업단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포장업체 뿐 아니라 인쇄업체들도 모여들기 시작, 영업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전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람프로세스는 활발한 영업활동 계기 이외에도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직원들의 손쉬운 의사 소통, 체계적인 품질 및 제품 확인 등으로



▲ 가람은 워크 스테이션을 통해 양질의 조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 서울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형 공장 IT캐슬로 확장 이전한 가람프로세스

로스율을 줄이고 품질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한 사장은 “직원들 또한 사무실 이전으로 과거 1~2층으로 나뉘었던 작업실에 비해 제품에 대한 의사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 근무환경에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실 이전과 관련 직접 인테리어에 참여한 한 사장은 작업 특성에 맞게 공간을 활용, 그의 꼼꼼하고 자상한 성품을 엿볼 수 있다.

한 사장은 고객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바이어와의 모든 약속을 지킴으로서 성실하

고 근면한 면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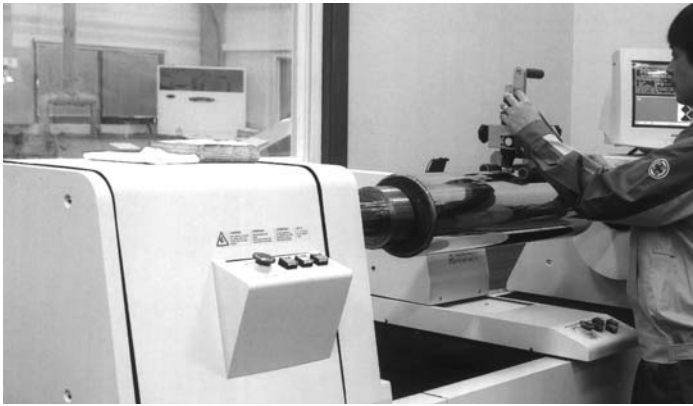
한 사장의 이런 노력은 IMF 시절, 부도 직전까지 간 가람프로세스를 거래처들의 도움과 절친한 죽마고우의 지원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평소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심어주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

가람프로세스는 이 경험을 토대로 더욱 고객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 서비스 향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정확한 그라비아

인쇄 구현을 위해 수준 높은 재판설비를 갖추고 있다. 가람은 워크 스테이션을 통해 국내외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디자인 파일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한 필름서비스와 양질의 조각데이터를 제공하고, 높은 속련도를 보유한 오퍼레이터의 꼼꼼한 손질로 해외에서 도입되는 데이터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 공정이 온라인으로 구축되어 있어 최대 규격(1,170×830)의 고해상 출력이 가능한 출력기와 재판공정 전 정확한 분판내역을 확인할 수

GARAM



▲ 조각공정 시스템

있는 컬러 교정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으며, 출력된 필름도 전문인력의 정밀한 검사로 완벽한 품질관리를 기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활용은 바이어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최신형 조각기의 도입으로 정확한 작업과 최상의 정교한 화질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부메랑 체판공정 시스템으로 풍부한 색채표현이 장점인 그라비아

특성을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정밀한 데이터 작업과 자동화된 최신 장비로 신속한 공정, 도금액과 부식액의 정기적 자동검검으로 품질의 균일화를 보장하고 있다. 이밖에 동판의 완벽성을 사전에 검사하여 인쇄체의 생산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간이 인쇄 공정인 교정인쇄는 동판의 불량으로 야기되는 혼란을 최소화하여 고객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서비스 공정이다.

시설적인 면 이외에도 직원들의 일사천리 한 작업 능력 또

한 고객 만족 서비스의 일환.

각 직원들의 뛰어난 능력은 가람프로세스의 애사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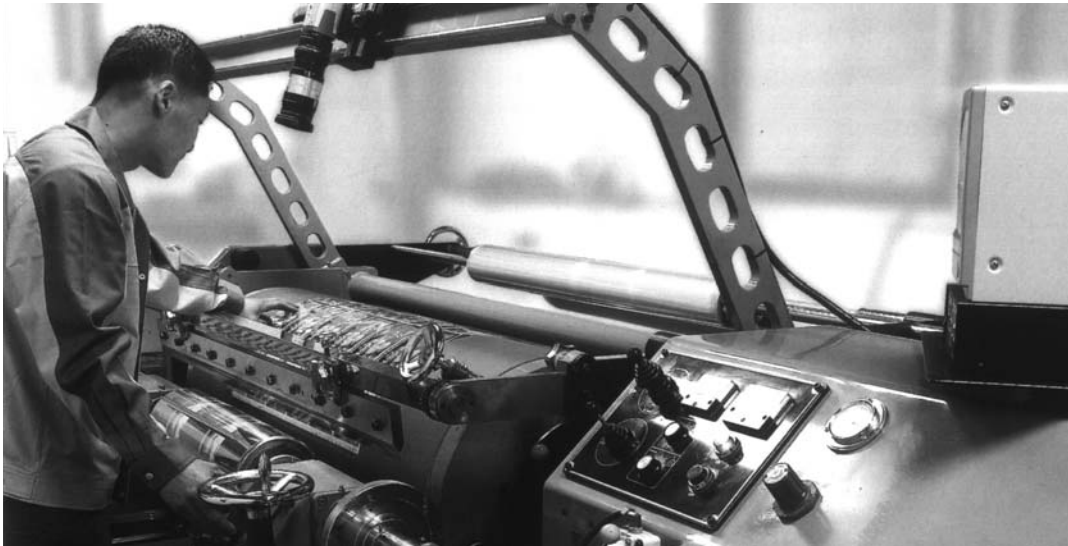
“기회가 된다면 가람프로세스에 뼈를 묻겠다”고 다짐할 정도로 직원들의 애사심은 놀라울 정도다. 실제로 가람의 창업멤버였던 직원들이 현재 함께 하고 있으며 동료애도 남다르다.

한 사장은 “20여년 동안 항상 한결같은 가람 식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각 직원들을 평가하자면 전부 A+을 줄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사장 역시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대기업 부럽지 않을 정도로 직원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추진력 있으면서도 정이 깊고 자상함이 배어 있는 한 사



▲ 교정인쇄기 시스템

장은 국가대표 럭비선수 출신으로 체육인 특유의 유쾌함과 화통함을 엿볼 수 있다.

“럭비는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인기 종목이지만 국내에서는 외면을 받다 보니 항상 외로움 속에서 운동을 해 왔습니다. 이런 경험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쓰러지지 않고 돌파구를 마련하여 돌진할 수 있게끔 제 자신을 다듬어 주었고 인내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운동을 통해 남들보다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왔던

한 사장은 어려운 국내 여건 속에서도 가람프로세스를 거듭 일으킬 수 있었다.

한 사장은 “포장디자인은 앞으로 계속 발전 가능한 산업인 만큼 고급화 전략으로 후렉소잉크가 보다 널리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제판산업도 수작업을 통했던 제품이 2~3년 후엔 모두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포장은 살아있는 산업”이라고 말하는 한 사장은 협회가 보다 위치가 굳건해져 불필요한 동종 업체들간의 덤핑

문제를 중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고 있다.

앞으로 가람은 제판업계에 있어 일류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좋은 기계와 시설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바이어들에게 최상의 고품질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경영인의 리더십과 21명 직원들의 애사심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람프로세스.

임직원 모두의 밝은 표정처럼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는 진취적인 가람프로세스의 미래 역시 밝을 수 밖에 없다. ☐

이한열 기자